

예산군 읍면별 인터뷰 조사 자료

- 기간: 2011.12.27.~29(3일간), 2012.1.10.(1일) -> 총 4일
- 조사지역: 예산군 12개 읍면
- 조사대상: 각 읍면장 및 부읍면장, 산업계장, 관련 공무원
- 조사목적: 지역전략자원 조사, 주요 이슈와 문제점 파악
- 참석자: 이관률, 허남혁, 조영재, 송주연

1. 예산읍 - (2011.12.27)

◆ 예산읍 주요 자원

- 쪽파(창소리, 관장리)와 토마토(일부지역) 재배가 주
 - 쪽파는 생산되면 그날그날 서울로 전량 다 출하 → 돈이 입금되는 형식.
 - 쪽파의 생산량은 전국적인 단위로 상당량 차지할 것으로 예상.
 -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토마토도 거의 다 올라감.
- 과수원은 많지도 않고, 과수원의 규모도 타 지역에 비해 면적이 좁음.
- 축산업도 일부 빼고는 거의 없음. 있어도 소규모 10~20마리 정도.
- 시골의 읍이면서도 농촌인구가 많지 않은 곳이 예산읍.

◆ 쪽파

- 쪽파의 경쟁력은? → 충분히 있음.
- 친환경 여부는 확인 필요.
- 쪽파 관련 인터뷰 적임자
 - 방규현 이장님(011-9830-4945). 창소리 2구1) 관장. 젊고 그쪽 방면에 열심히 임함.
 - 광노범 이장님(018-425-6325). 현대아파트 거주. 창소리 4구, 5구(?) → 확인필요.
- 이외 반드시 만나봐야 할 분들
 - 농업인 단체
 - 김성우(농산과에서 잘 알터임.) → 항상 예산군의 불만 제기하고 친환경에 대해 얘기하시는 분

[쪽파 재배단지] ▶



1) 리 단위지만 행정단위가 크다 보니 관할구역으로 나눠놓음.

◆ 지역생산-지역소비

- 역전시장과 읍내시장 존재
- 그러나 자체소비되는 것은 거의 없음.
- 예산에서 생산된 것이 거꾸로 가락시장에서 내려와 파는 형태. 중간상인 존재.
- 유통구조를 풀 수 있는 실마리는 있을까?
 -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생산 농산물 구매해서 아파트에 판매하는 형태가 있긴 하지만,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음.
 - 청년회나 모임을 관리하는 곳은? 없음. / 텃밭도? 없음.

◆ 예산읍 소비수요

- 예산군 공무원 수 700여명 / 군청 300여명 / 예산읍 7-80명 / 일개면 15명정도.
 - 그 분들이 대부분 예산에 살고 있으며 고향이 관내인 사람들 대부분.
 - 따라서 부모로부터 받은 농지가 대부분 있으며, 해결 가능한 부분은 자급자족 하고 나머지는 소비.
- 예산읍의 외지인 비율?
 - 외지인도 있음. 예로 선생님들 또는 KT 직원들.
- 현재 예산읍 공무원 내지 외지인들은 거주 아파트 주변 마트에서 구매하는 경우 많음.
 - 석탑아파트 / 주공아파트 - GS 마트
 - 한신아파트 - 하나로 마트 & 한국유통
 - > 마트에서 사는게 시장보다 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.

◆ 향후 예산읍 단위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농업자원은?

- 예산의 예당평야 - 쌀
 - 삽교 하포리. 예전에 바닷물(?)이 들어왔던 곳이라 미질이 상당히 좋음.
 - 경기도 이천 등지에서 업자들이 사서 갈 정도. 좋은 쌀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음.
- 타지역 전략자원
 - 오가(호파)
 - 봉산(파리고추)
 - 광시(한우)
 - 오가, 신암(사과) → 사과도 실제로 충주쪽이나 다른 곳에 비해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음. 앞으로 사과에 매달려야 되나 하는 생각. 예산 사람들은 사과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지만 향후 힘들 것이라 예상 됨.

2. 신암면 - (2011.12.27)

◆ 인구 고령화

- 신암면 인구 4300명 중 1240명이 65세 이상
- 농업인구는 31농가, 69명이 있지만 두명 제외하고는 모두 65세 이상

◆ 충남 농업기술센터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?

- 농기센터 부지 받은 예산군 땅(20만평)인데 충남하고 바꿨음.
- 당시 300명의 인구가 들어올테니 인구유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홍보.

- 하지만 유입인구의 지역흡수가 전혀 되지않고 있음.
- 실제 거주 인구 한명도 없음. → 모두 기숙사 살고, 거기서 숙식을 모두 해결하고 있음.
-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이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음.

◆ 신암면 주요 전략자원

- 사과
- 수도작
- 하우스
 - 시설채소 재배 → cycle: “2월(배추)-4~5월(수박)-8월(열무)-10월(쪽파, 시금치)”
 - 한 동네 하우스 2100동 들어서 있음
 - 신암면의 소득 1위는 하우스 / 하우스 150동 하는 사람 연소득 12억

◆ 농업 인력난

- 하우스에서 배추만 심을 때는 공주, 서산에서 1000명 정도가 들어올 정도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, 40대와 50대의 팬찮은 인력들은 대부분 농기센터로 유출되고 있음(약 200명 가량).
- 이 인력들은 농기센터에 단순노무직으로 계약되고, 2년 단위로 계약.
- 결국 농기센터로 인해 지역 농업노동력이 유출되고 있음.
 - why? 하우스 일에 비해 농기센터 일의 용이성. 이질감 생김.
 - 결국, 농업기술센터가 오히려 지역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.
- 농공단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.
 - 동물약품 단지에 16개 업체가 있는데, 그나마 또 남은 젊은 아주머니들은 이곳으로 가버림.
 - 따라서 농업에 종사할 만한 팬찮은 인력은 다 유출되고, 임금은 상승되고 있음.
 - 결국 주변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들여와야 함. 이와 관련한 전문 업체가 존재할 정도. 지역 내 이런 업체가 3군데 있으며, 맞춤형으로 인력을 공급해줌.
 - 일의 형태는 도급으로(하우스 1동 2100포기 배추).

⇒ 결국 지역 내 대농들은 혼자 다 일을 함.

⇒ 현재 신암면에 농사 형태는 대농이 적합

◆ 신암면 농업의 문제점

- 노동력을 어떻게 공급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.
- 시설채소에 대해서는 나름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.
- 여름에는 쪽파를 심기가 엄청 힘들.
- 하우스는 50동 정도는 최소한 해야 경쟁력이 있음.
- 사과 재배지역이 자꾸 올라가고 있음.
 - 아직까지 기후변화에 따른 사과 품질의 문제는 없음. 사과꽃 피는 철에 동해 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음. 수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음.
 - 기온이 높아져가 아니라 지형적으로 부분적인 현상이 있음.
- 쌀의 브랜드가 고정적이지 않음 → 황금쌀, 미황쌀, 갤러리쌀 등 도대체 어떻게 지역쌀?
 - 대부분 인천 내지는 서울로 판로.
- 유통구조 7단계
 - 생산 → (떠넘기기) → 중간상인 → 가락시장 → 도매시장 → 소매시장 → 소비자

- 생산자: 병충해 방지, 시비, 물주는 것. 생산자가 1차 상인에게 넘기기 전까지 모두 책임을 짐.
- 그 외 농업 관련 개선사항
 - 토양개량 (연작 피해)
 - 하우스 시설 벗겨서 토양 햇빛 봐야 되는데 그대로 두고 햇빛 보니 토양이 타버림. 미생물이 활성화되지 못함. 한번하고 2년정도 사용
 - 생각보다 농약은 많이 쓰지 않음.
- 집하장과 같은 시설은 있긴 하지만, 단순히 박스를 모아놓는 정도.
 - 집하장으로 오는 것은 소규모임. 당일 나가는 소규모.
 - 쪽과 말고 방울토마토, 애호박 정도. 소규모로 되는 것만 집하장에서 관리.
- 농협에서 위탁을 받아 동네를 순회하면서 올려보내주는 업체가 신암면 내에 있음.
- 여름 부패문제로 저온저장실이 필요.
- 고령화의 문제가 매우 심각함.
- 토질 고려한 품목 연구도 필요.

◆ 예산군에서 경쟁력 있는 것은?

- 아직까지는 사과.
- 쌀은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. 40kg에 4만 7~8천원. / 미곡장으로 가면 5만 7천원 정도.
- 당진, 아산으로 쌀이 많이 유출되기는 했음.

◆ 친환경에 대해서?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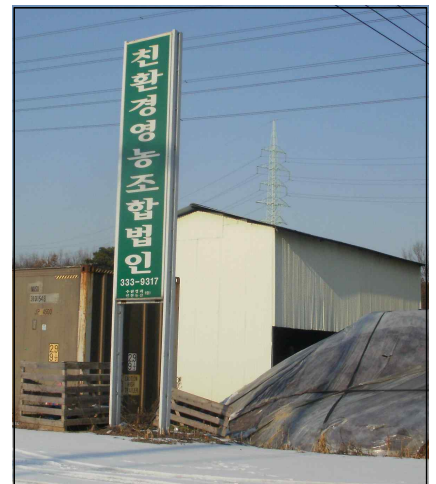
- 부면장님은 친환경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생각.
- 농약명: 파라치온, 리아호진(?)을 80년대까지 썼음. 그렇게 재배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달라졌음. 친환경에 대한 기준을 들이밀 것이 아니라 지금 자체가 과거에 비하면 친환경.
- 농법 자체는 과거보다 농약을 거의 쓰지 않음. 오히려 문제는 수질 등의 문제임.
- 아산만, 삼교천 공업용수가 많이 나오지만 이곳은 수질이 깨끗함.
- 친환경영농조합법인(태극- 수박 관련) : 돈 받고 하는 것임. 큰 사업은 조합법인을 만들어야 보조금이 나오는 실태. 041-333-9317

◆ 주요 장터

- 예산: 3일, 5일장 / 삼교 2일, 7일장 → 수산물이 오히려 팔림.
- 우리나라 유통구조는 뉴질랜드와 같은 구조가 안됨.
- 직거래 장터라고 하지만 실제 농민이 아님. 다 장사꾼들이 가게 됨.

◆ 추천 농업인

- 하우스 농사- 이병우(150동)
- 과수원-문현식 -> 이마트 들어가는 사과 재배



3. 대슬면 - (2011.12.28) / 대슬면장 이세원

◆ 예산군 주요 자원

- 벼 - 신양
- 수박 - 대슬, 신양
- 한우 - 광시, 신암 / 광시에서는 뽕나무로 소 인증

◆ 대슬의 농업 상황

- 도농간 소득차이가 금년이 가장 큼.
- 금년도 구제역 관련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례도 있음. → 대슬에서 소와 돼지 관련 고소득 수입자 있음.
- 이곳은 벼농사를 지어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됨.
⇒ 복합영농 형태 → 축산 + 수도작 + 밭작물 등

◆ 대슬면이 농업부문에서 육성할 수 있거나 경쟁력 있는 자원은?

- 수박재배 : 마전리 / 고소득자들
- 표고버섯 : 참나무 多, 산골이라 표고버섯 재배에 유리
- 축산도 여건이 잘 되지만 돈이 문제. & 폐기물 처리가 어려움.
- 대슬면의 경쟁력 부분 : 저수지가 있어서 환경이 좋음. 또한 대슬면 이터리쪽은 산이 있어서 경관이 좋음.
지리적으로는 군소재지 예산읍과 붙어있고, 아산시와 가까움.
→ 전원주택형 펜션사업을 하고 싶으신 생각. 고령화 노인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심.

• 주요자원

- 표고버섯 : 농협 → 신양농협 (농협을 통한 유통)
- 수박 : 마전리 / 수박은 독자적인 유통망을 잘 갖추고 있음.
- 한우
- 양계 : 양계 관련 공장이 좀 들어왔음.
- 블랙 초크베리 & 체리 :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작물개발

◆ 친환경

- 고덕 구만리에 자원순환형 (50ha)
- 친환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. 관정을 뚫어서 해야 함. 고덕 EM 농법 -> 자연순환형
- 축산분야의 인증 - 무항생제 돼지 생산(덕산) /
- 응봉의 이한도 의원 (친환경) - 블루베리를 EM 기법에 의해 농사짓고 있음.
- EM주를 만들기도 함. - 고소득 농가
- 연암축산 - 친환경에 대해 파악하기 좋음.
- 기업형 LED 공장 -> 친환경 사업의 형태

◆ 대슬 농업의 문제점 및 정책적 필요성

- 다수의 중소농들이 문제
→ 대농은 전체의 1~2% 정도(소득 기준으로 순수익이 5,000이 넘으면 통상적으로 대농으로 봄.)
- 소농에 대한 정책 투입의 문제? → 소농과 대농의 정책은 분리되어야 함.
- 중소농에 적합한 작물 개발
- 한편 앞으로 대농의 역할도 승계할 인력이 없음. 농업대학 정도의 수준에서 대물림 가능 정도.

- 대술면도 공공근로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상승함. → 젊은 인력이 없고, 결국 농업생산에 기여할만한 인력이 부족한 현실.
- 농업에 앞장설 수 있는 리더가 없는 현실
- 소농들과 서민층들을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함(현재 예산군의 정책은 대농들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음).
 - 스위스의 경우는 면적이 아니라 호당, 가구당의 지원이 이루어짐.
- 현재 쌀은 맛도 좋고, 나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, 문제는 가격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.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짐(경기도 이천쌀과 당진 해나루쌀 등과 같이 브랜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함). → 따라서 가격 차별화와 신뢰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 있음.
- 계장님: 저온저장고 시설 → 보관해서 반찬 만들어서 공급 또는 판매 가능
- 면장님: 군 단위에서는 작물 종류만 보고 지원과 비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도 했음.

◆ 지역생산-지역소비

- 중국의 저렴한 농산물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.
- 현재 친환경과 고품질로 국내산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점점 중국의 농산물도 질이 높아지고 있음.
 - 따라서 우리 농산물은 우리가 소비해야 한다는 할 수 있는 인식을 가져야 함.

◆ 대술면 농업의 발전방향

- 복합영농으로 가야 됨.
- 예산은 귀농귀촌이 향후 많아질 것으로 보임(콘도형태가 아닌, 전원주택형 펜션을 많이 건축해야 됨).
 - 현재 귀촌자들 조금 있음. 하지만 대부분 수양 목적이며, 은퇴한 분들 위주 → 지역사회와의 교류는 거의 없음.
- 관광도 과거 형태는 안되고, 농업관광으로 가야됨.
-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작물을 역으로 개발해야 될 필요

◆ 추천 농업인

- 벼 - 김숙우 회장님(고덕면) / 우돈식()
- 채리 - 박우학()
- 수박 - 대술 마전리. 조명익(041-333-5338,
- 신양 불월리. 신재영(예산 친환경수박 연구회)
- 한우 - 한우협회 회장

4. 신양면 - (2011.12.28) / 점심식사하면서 인터뷰

◆ 신양면 농업의 문제점

- 고령화의 문제
- 산지지형이 약 70%로 경지면적이 소규모. 따라서 기계화에 한계가 있음. → ∴) 축산 多(소규모)
- 특색자원 → 하우스(수박 & 화훼). 그러나 인력수급이 많이 안됨.
- 지역에서 일할 인력이 많이 없음. 리더, 특히 역량있는 리더가 없는 현실
- 따라서 신품종, 기술을 농촌, 농업에 접목시키기 힘든 실정.
- 귀농, 귀촌자들도 대부분 요양 목적이 많으며, 귀농은 잘 X. 농업은 소득이 안되니 한계가 있음.

◆ 신양의 주요작물 및 자원

- 화훼
- 수박 : 서울, 인천, 수원, 경기 등지로 수박은 전량 나가게 되어 자체소비가 없음.
→ 불원리: 연작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“참외 → 수박 → 화훼” 등 돌려짓기
- 한우
- 산을 활용하고 싶은데, 어떻게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을지가 문제.
- 신양면 여래미리: 산촌생태마을 → 산약초 / 삼백초
- 대덕리: 농산물 가공공장
- 여래미리: 은행. 예산의 은행특구*

예산 ‘은행특구’ 지정 본격 추진

전국 유일 은행나무 과원 조성... 연간 1350t 생산

예산군이 지식경제부로부터 ‘은행특구’ 지정을 받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. 6일 예산군에 따르면 최근 은행특구 지정과 관련해 공주대 산업과학대에 2800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의뢰했다.

이 용역을 통해 대상지역의 은행 재배 및 생산실태를 조사하고 특구 명칭과 위치, 면적, 특화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. 오는 7월말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경부에 특구지정을 신청, 연내에 지정받도록 할 계획이다.

예산지역에는 과거 예산농업고가 은행나무 식재운동을 펼치고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유실수로 은행나무가 보급되면서 현재 20만여 그루의 은행나무가 식재돼 있다.

또 3300여 농가가 전국 생산량의 38%인 연간 1350t의 은행을 생산하고 있으며,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은행나무 과원이 조성돼 있고 은행 가공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기업도 있다.

지난해말 ‘예산 은행자원 녹색산업화 사업’이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돼 2012년부터 국비 등 3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.

군 관계자는 “예산군은 이미 지경부로부터 사과특구로 지정된 상태”라며 “은행특구로도 지정받아 예산산 은행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동양일보, 2011-03-06

<http://www.dynews.co.kr/detail.php?number=101159&thread=15r01r02>

- 예당 저수지 상류지역으로 공장이 없음. / 예당저수지 - 어죽
- 귀곡리(친환경생산본부) 친환경쌀 : 귀농학교, 체험기관. 산을 이용한 마을

◆ 정책 제언

- 계약재배의 가능성 →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중요함. 현재 나머지 물량이 많음.
- 예컨대 담배 작물의 경우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어 있고, 가격이 안정되어 있으니 맘 놓고 농사지을 수 있음.
→ 정책적 가격안정화 시사.
- 농기계의 공유 → 용자
- 신양면 현재 평균연령이 50대이며, 65세 이상의 비중이 약 33%인데, 과연 20년 후 누가 농사일을 대체할 것인가?
- 농촌의 인력 최소화하면서 고부가가치 가능한 것을 찾아야 함.
- 현재 정책은 소농육성이라고 하면서 정책적으로는 대농에게 focus

◆ 추천농업인

- 이광수씨
- 손기승씨(하천리)
- 한국생명농업교육원 → 김종문씨(불원리) - 처음 하우스 보급
- 송백구 이장님(귀곡리 2구) - 학교급식납품 하시는 중
→ cf) 유향농법: 유향먹인 참외, 토마토 등 (누가 하는지 확인해야 함.)
- 양희승씨 : 표고버섯 / 친환경
- 김용필 의원: 서울에서 귀농하여 농촌실정을 꿰고 있음. 농업단체장과 의원직을 함께 수행

5. 광시면 - (2011.12.28)

◆ 김용필 의원 comment - 농가의 애로사항

- 소 가격 300 → after 21개월. 250만원이 현실
- 하우스 → 면세유 소량. 기계화로 운영 어려움
- FTA 관련 유통문제
- 연구원에게 바라는 것: 현장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보완. 신빙성있는 통계자료 보완

◆ 광시면 주요 작물 및 자원

- 축산업
 - 뽕잎 한우 (농기센터에서 진행.)
- 구기자 -> 노동력 부족의 문제로 50% 정도 감소
- 오미자는 그리 많지 않음.
- 순수 딸기 -> 관음리, 용두리 하우스(시설로 재배). 겨울만 딸기 재배
- 친환경 쌀 (황새마을)
 - 친환경 농경지 / 황새마을 추진과 관련해 친환경 농경지로 대부분 바뀔 듯 → 하지만, 농민들이 쉽게 따라 와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.

=> 현재 경쟁력은 아니지만, (딸기, 한우, 쌀) 정도가 그나마 경쟁력이 있음.

=> 광시한우는 브랜드가 아니라 먹거리를 위한 한우시장으로 봐야 함. 주변 청양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질 좋은 암소만을 골라 유통됨. -> 향후 한우에 대한 브랜드를 생성해야 될 것 .

◆ 친환경 농업

- 앞으로 농업은 친환경 농법으로 갈 수 밖에 없음. 단, 그 친환경 단계 중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인가?
- 현재 전환기 시기 → 전환기 시기에는 양적으로든, 자금적으로는 분명 기존의 양을 커버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됨. 이 부분을 누가 채워줄 것인가? 나라에서 분명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할 것이다.
⇒ 차액보존 (예산군에서 신경을 써줘야 할 것. 농협은 지금 적자 때문에 나서지 않음.)
- 친환경 쌀을 보존하는데 있어서의 문제도 고려

◆ 예산군의 농업 관련 취약점

- 예산군 농업 발전을 위한 인적 인프라가 취약하다.
 - 농민 외 관련 공무원들 및 인력이 부족.(농정 유통 분야)
 - 계룡시 제외한 15개 시군 중 예산군이 가장 부족한 상황. 타 시군에 비해서는 부족함.
- 그렇다보니, 예산군 인력들의 Network가 부족함.
- 또한 품목별 농민들의 네트워크도 잘 되지 않고 있음.
- 브랜드의 문제 : 전국에서 인정받는 브랜드가 없다.

◆ 예산군의 장점

- 충남의 사과 중 52%가 예산군 -> 예산의 능금농협(사과만으로 유일)
- 하지만 솔직히 거창사과와 충주사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짐. 브랜드도 뒤짐. 향후 길게 볼 때 예산사과의 수명은 짧은 것. → 품종을 개량하던지, 브랜드가치를 높이던지 다른 방안이 필요.
- 식량 자급율. 쌀은 104% -> 전체의 식량 자급율은 27%
 - 광시면은 상황이 괜찮다고 보여짐.
 - 교원대학교에서 추진하는 (천연기념물 199호) 황새복원센터 광시면으로 들어옴.
- 광시의 황새단지 건립
 - 황새는 물이 1급수 아니면 머무르지 않음. 친환경의 symbol
 - 광시황새권역정비 47억 선정
 - 무안천 150억(환경부)
 - 광시면소재지사업 150억
 - > 향후 광시 4, 5년 정도만 있어도 광시의 상황은 달라지게 될 것임.

◆ 필요한 정책 부분

- 너무 대농위주의 정책 → 소농도 함께 고려
- 어차피 우리나라 농업은 이대로 살게 해주돼, 나머지 사람들은 전문화를 시키는 전략. 그러나 잘 안되고 있음.
- 농지개혁을 시행해야 함.
- 동기부여가 중요함.
- 예산군의 농업전략에서 품목별로 갈 수 밖에 없음.
- 광시면은 한우위주로.... 한편 한우는 쌀과 함께 갈 수 밖에 없음.

- 사업방향: 사과 / 한우 / 국화 / 파프리카(신암의 수출용) / 쌀(지역별로)
- <황새 / 친환경 / 한우> → 하나로 묶어 연계하여서 사업 추진 필요.
- FTA의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줄 것.
- 지역별 맞춤형 농업을 지원하되,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음.
- 아래쪽 광시, 대흥, 응봉은 테마 중심으로
- 6차 복합 농업을 추진하고 싶은 생각 ○ -> but, 예산군 내에서 6차산업화가 되는 지역이 있고, 안되는 지역이 있음. 그것을 가려내어야 함.
- 왜 농촌이 지금까지 못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. → 근본적으로 소득과 교육기회 등이 안받쳐 주니까 자꾸 떠나게 됨.
- 예산군의 농업이 무엇이 부족한건지,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짚어주고 진단을 해주길.
- 해결책은 현장에 있다!

◆ 추천 농업인

- 김지화 - 군사리 이장 / 한우타운-뽕잎 한우
- 강황진 - 쌀(친환경) / 논사리 이장
- 박상희 - 딸기(시설딸기) / 관음리 이장 / 논농사 / 한농연 광시 회장
- 김택영 - 광시한우작목반장

6. 대흥면사무소 - (2011.12.28)

◆ 대흥의 주요 자원

- 쌀 농사 중심(사과가 약 50ha. 여기는 저수지라 농경지가 별로 없음).
- 블루베리(노지도 있고, 시설도 있고) 9농가
- 사과는 20농가 / 배 40농가
- 시설채소(딸기, 토마토, 수박) 면적은 크지 않음.
=> 경쟁력이 있는 것은? 쌀, 사과, 블루베리, 시설채소!!

◆ 예당호 내수면 관련

- 내수면이 쌀보다 소득에 훨씬 더 나음. -> 내수면 어업허가
- 좌대산업 잘 되고, 붕어 토종으로 활용하여 만들어 팔.
- 치어 방류 : 12월 30일 건물 준공
- 어업계가 있음.
- 예당호가 응봉, 대흥, 광시 세 지역에 걸쳐져 있음.
- 예당호는 자원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함. 주요 자원에 해당 됨.

* 드라마 “산넘어 남촌에는”의 영향 -> 홍보 효과는 있지만 대흥(또는 예산)과 kbs 촬영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는 없음.

◆ 문제점 및 애로사항

- 판로가 문제임.
- 대홍장터는? → 현재는 슬로시티가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로 문제가 많음. 텐트치는 일부터, 땀별에 할머니들이 앉아있는 것도 고생. 판매 못하고 그냥 돌아갈 때는 힘들어하심.

◆ 필요한 정책 부분

- 조합 유통 부분
- 가격조정 통제
 - 생산은 문제가 없지만 판매가격이 일정하지 않으니까....

◆ 농업특징별로 예산군 권역 분류

- 예산 / 오가(쌀, 특작) / 신암 / 고덕 / 삼교 - 잘되고, 부유한 곳 / 응봉은 적고

◆ 추천 농업인

- 블루베리:이복수 ()
- 사과: 강갑석 ()
- 쌀:김경호 이장 ()
- 내수면 회장:최홍규 (→ 산림축산과 쪽에서 내수면을 담당하고 있음.

◆ 작목반 및 연구회

- 쌀은 작목반이 없음.
- 배(2개 있음)랑 감자 작목반 있음.
- 감자는 연구회(규모는 작음).

7. 고덕면 - (2011.12.29)

◆ 고덕면의 농업 특성 및 주요 자원

- 고덕면은 농경지가 많고, 예산군에서 가축이 가장 많은 지역.
- 한우 / 젓소 / 양계 / 양돈이 아마 예산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.

- 고덕은 북드리 / 남드리로 양분
 - 남드리: 순수 논농 / 북드리: 주로 축산 위주
 - 그 경계는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있음.
 - 쌀은 정부수매보다 개인정미소로 많이 빠지고 있음.

- 고덕은 타 지역에 비해서 부농이 많은 지역에 속함.
- 농지도 많은 편임.

◆ 고덕면 주요 품목

- 한우 / 육우 / 양계 / 양돈
- 파리고추(상봉리-북드리 / 노동집약적). 고덕 최고 특산물
 - <about 파리고추> 연중 재배. 파리고추는 돌려짓기 잘 ×
- 쌀 - 구만들 / 용리들 → 평야가 있는 쪽이고, 논농사 하는 부농들이 많은 지역.

- 이 지역이 친환경 농업을 많이 하고 있음. 쌀을 80kg 25만원까지 직거래로 하고 있음. 백화점으로 바로 납품하는 단체가 있음. 예산 자연농회(회장: 구성서씨) - 20~30명 정도 구성. 삽교와 봉산에 한두분 계실 듯.
- 옷골사과

◆ 축산업 상황 역전

- 대전 당진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논농을 하는 남드리 지역의 변화가 생김. 논농사에서 시설채소, 축산업 부분이 변하고 있음.
- 축산업 - 사료값, 한우값 폭락,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.
- 북드리 지역 - 산업단지가 속속들히 생기고 있는 중.

◆ 고덕면의 문제점 및 농정 방향

- 농업이 안정화되기 위해서 쌀값 안정화가 가장 중요.
- 매상 가격이 좋지 않은 상황. 예전은 정부수매가 농업의 '주' 였지만 요즘은 개인화되고 있음.
-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 삼광벼가 아닌 주남벼를 대부분 재배하고 있는 실정.
- 인력은 생산장비가 좋아 괜찮음.
- 고덕면은 대단위 중심의 논농사가 이루어져야 할 듯. -> 논농업의 집적화
- 이를 위해 항공방제가 필요함. / 삽교와 합덕 사례 있음.
- 이지역의 가장 큰 문제 -> 산지지역, 인삼, 버섯 등을 많이 하지만 토사유출 심해 농배수로의 오염문제 심각.
- 경지정리(삼곡리)한 지역 -> 삽교천 막은 이후로 물이 역류하는 환경 문제. 하천보다 농업용 지대가 더 낮음. 농경지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.
- 농배수로 사업도 필요.
- 친환경쌀과 저농약 사과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 더러 있음. 헌데 저농약과 무농약을 유통업자에게 넘기는 판매가격은 거의 비슷. 따라서 무농약을 할 필요가 없다.
- 친환경쌀은 생활협동조합과 계약을 하는데, 2~3년 후의 것을 계약하게 됨. 그러나 친환경쌀은 작황 예측이 잘 안되고, 안정적인 판로가 어려워 애로사항 있음.

=====

<이장님>

- 예산군의 지원이 APC로 가는 바람에 농가에 직접적인 지원금이 잘 안옴.
- FTA에 대한 대응에 대해 걱정, 우려.
- 키낮은 과수원 진행 중.
- 농약 상투 지원되고, 친환경 지원 있고, -> 과수는 그런 지원이 없음. 과수 고령화, 인건비 때문에 조건이 좋지 않고, 앞으로 5년 뒤에는 재배 어려운 상황.
- 이런 상황에 FTA 대응한 질 좋은 사과 재배가 가능한가? 고령화로 인한 인력문제가 심각.

=====

◆ 농업이 안정되기 위해서는,

1. 쌀값안정
2. 사료값 안정만 된다면, -> 농업 경쟁력이 있음.

◆ 친환경에 대해 어떻게?

- 앞으로 무조건 친환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.

- 파리고추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님.
- 시설채소연합회 있음. (회장: 이길구) 17가지 품목으로 구성

◆ 예산의 사과?

- 예산은 사과가 주작물인데도 불구하고, 사과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는 곳이 없음
- 사과는 “오가 / 삽교 / 고덕 / 신암” 정도가 많음.
- 이곳은 시설채소, 축산, 사과 등 많이 하는 비교적 부농지역.
- 사과 가공에 대한 필요성?
 - (이장님) 저품질이면 모를까 가공은 힘든 상황. 현재 가격경쟁력도 안되고 다른 곳에 수출하기도 힘든 상황.
 - (이장님) 왜 기관에서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는가? 농약 잔류 검사하는데 실제로 인체 유해 정도가 엄청 낮게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는가?
 - (이박사님) 친환경 인증 제품과 친환경에 준하는 제품 언급.

◆ 추천 농업인

- 구성서씨: 예산 자연농회 회장
- 이길구씨: 시설채소연합회 회장

8. 봉산면 -(2011.12.29)

◆ 봉산면의 여건

- 68% 임야. 나머지는 일반 경지 → 전형적 농촌 산간마을
- 구제역, 장마 등의 영향을 올해 많이 받음
- 농촌의 고령화 극복 능력 상당히 취약
- 행정적 지원으로 극복하려고 노력 중
- 봉산면은 예산의 지리적 중심지역. 내포신도시. 대전-당진 고속도로 연결. 덕산과 내포 신도시의 배후도시. 레저, 기타 관광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
- 2900여명 (인구) / 외국인 포함 3010여명
- 2015년까지 발전 한다면 5000여명 예상
- 5대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음.
- 농업용 배수, 환경사업 -> 농업기반시설
- 3년에 걸쳐 30억 투자. 생산기반시설, 농업배수, 환경 등
- 저수지 중심으로 서산 고품 저수지, 덕산, 마이에미 등 마을권 종합개발사업
- 지방도 접두구역 개발 못하게 되어있음 -> 해제한 이후 개발할 계획
- 인구가 적어서 생활시설 낙후되어 있음. 내년 4월 137평의 건강레저시설 완공
- 의원, 병원 멀어 → 보건진료소 신축

◆ 봉산면의 특징

- 농업기반 상당히 취약
- 일부 과수와 파리고추, 주는 벼농사 → 1차 농업에 의존하는 구조
- 봉산은 산, 교통요지, 개발가능과 보존의 양립성을 다 가지고 있음.
- 봉산면의 동쪽은 고속도로 인근으로 개발해야 될 곳.
- 봉림저수지 중심 일대. 봉림리: 농촌의 진면모를 볼 수 있는 곳이다.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(예비계획이 들어갔음) 들어간 곳. 친환경 중심으로 육성할 곳.

◆ 주요작물

- 특산물로 파리고추가 전망있지 않을까.
 - 파리고추가 고소득. 단위면적당 소득이 아주 높음. 그러나 노동력 투입되는 것이 힘들.
- 표고버섯 (7농가)
- 산지지형을 끼고 있어서 대술면과 비슷한 상황
- 쌀 농사의 비중 : 거의 쌀 농사에 의존하고 있음. 전체 소득의 30%가 쌀 소득.
- 사과 43농가 있음. 중간정도 가지고 있음.

◆ 친환경 농업

- 봉산면 친환경 쌀 재배 하고 있음.
- 골짜기로 평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재배는 더 좋음.
- 자연적인 여건이 → 골망들이 발달되어 있음. 친환경은 혼자서는 안됨. 단지식으로 들어가야 됨.
- 예당호를 중심으로 해서는 향후 공장들이 못들어감. 친환경으로 갈 듯.
- 시대의 흐름상 양의 시대에서 -> 질의 시대로 이동. 농민들 스스로가 친환경에 대한 흐름을 인식하고 있음.
- 다만 무농약 유기농까지의 수준은 아니지만 무턱대고 농약과 비료를 살포하지는 않음.
 - 친환경은 대농에게 안맞음.

◆ 농업의 문제점 및 농정방향

- 인구 고령화 문제
 -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, 앞으로 영농 후계자가 없음.
 - 현재 60~70대가 주를 이루며, 주는 농기계. 소농들이 이끌어나가는 상황.
 -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소농에 대한 소득 보장이 잘 되어있지 않다. 쌀 가격이 제대로 나오지 않음.
- 대농도 몇 분 있음. 대농 제외하고는 연소득 1800~2000만원 정도의 농가소득
- 향후 발전... 젊은 후계자를 중심으로 농업이 대형화가 되어야 할 것
- 이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.
- 젊은 사람 중심의 시설원에 등 특수작물 시작.
- 덕산, 봉산은 친환경 단지가 조성되어 친환경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됨.
- 봉산면 공공 육묘장이 대형으로 들어오고 있음. 친환경 영농 확대해서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- FTA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.

◆ 귀농귀촌자

- 표고버섯, 연꽃 활용 -> 떡, 향토음식, 메주, 파리고추 => 귀농자들의 모임있음.

- 도시에서 귀농모임자들에게 귀농문의를 많이 함.
- 대부분은 자가소비로 농사지음. 판매 위주가 잘 없음.

◆ 기타

- 그동안은 농업이 자기 소유였지만, 요즘은 임대개념.
- 노인들은 땅이 있어도 남을 주고, 경작 다 안함. 임대하는 사람들은 기계를 가지고 판매위주 경작하는 사람들.
- 1,000 농가.
- 수도작은 기본적으로 다 하는데 노인분들은 수도작과 텃밭(고추류)정도로 경영
- 돼지가 기업농이고, 소는 한두마리씩, 소농들 많음.
- 70대 이상은 대체로 자가소비용 농업.
- 농촌에서 기초생활비용을 고려하여 상업농인지 자가농인지 구분할 수 있음.

9. 덕산면 - (2011.12.29)

◆ 덕산면의 주요 농업자원

- 인구 7400명. 관광 휴양도시.
- 경지면적은 군 내에서 뒤에서 세 번째.
- 덕산농협 주관으로 덕산-봉산. 친환경 권역 추진. / 둔리2구 체험마을
- 논농사 중심이긴 하지만, 발달되진 않음. 축산농가 일부. 시설(딸기) 일부.
- 주로 논농사 밭농사.
- 60, 70%는 외지인들이 땅을 매입. → 땅을 임대해서 경작하는 경우가 많은데, 특수작물 재배를 지주들이 못 하게 함.
- 과수농가 없음. 토질도 잘 안되는 조건(사질토?)
- 최소 밭작물 정도와 수도작.
- 축산은 약 25% 정도 차지함. (200농가 정도)
- 대농도 있긴 함. 대신 외부의 땅을 대형으로 매입해서 경영하는 형태.
- 식당: 덕산 쌀을 주로 쓰지만. 다른 식재료는 공급 다 안됨. 식재료는 예산 것을 주로 많이 쓰는 편.
→ 확인 필요

⇒ 종합적으로, 덕산은 농업자원이 빈약. 예산군 내에서 덕산면은 시장과 소비처로 활용할 것 고려.

◆ 예산 농산물의 시장?

- 식재료 식당에 중개상들이 대주는 형태. 5일장도 열리고 있음. 요식업체 회
- 요식업체조합장 덕산에 있음(덕산자체)
- 관광객이 시장에 오는 경우? 거의 없음. 5일장 쫓아다니는 분들 빼고.
- 직판장: 스파캐슬에 농산물 홍보관. 수덕사에 상가 38개. 농민들 직접 직판장은 없음.
- 길 옆 직판장은 지역민들이 하는 것 맞음. → 확인 필요.

◆ 추천 농업인

- 김영세(덕산 요식업체 회장) : / 041-337-4314 • 이연원(축산-무항생 돼지) :
- 유수복(쌀 관련) :
- 윤상선(사슴농장) :

10. 오가면 - (2012.1.10) / 정종훈 산업계장

◆ 오가면 주요 작물

- ① 축산(소, 돼지) : 두수로는 돼지 多, 농가수로는 한우 多
- ② 시설채소(쪽파, 무, 배추 등) -> 창소리와 유사하게 계절제로 사이클화, 창소리와 연계됨.

◆ 오가 농업의 특징

- 오가에는 대농이 많음.

◆ 시설채소와 친환경의 접목가능성은?

- 충분히 가능함. 현재도 접목 중인 곳들이 많음. -> 친환경 지정비율 확인

◆ 농업의 문제점

- 채소값 -> 유통과정에서 유통마진의 문제점.
- 따라서 자체적으로 순환되어야 한다고 생각. 황새 슬로건과 연계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.
- 쪽파는 거의 전량 가락동 시장으로 가고 있음.
- 시설채소 상인들은 도매상인 간의 계약 재배 (45일 이후 출하면 맞춰서 해야 됨.)
- 배추에 풍기가 있으면, 갈아엎어야 됨. 도매상인이 안가져가니까.... 이때 군에서는 타작물 유도해야 되는데... 순환이 안됨. 계약금의 문제. 농협 대출로 가거나... 어려움.
- 한번 틀이 막히면 농민들이 애로사항. -> 작물의 전환이 쉽지 않음.
- 토마토의 예) 5일장이 맛이 더 좋음. -> 마트에서는 덜 익은 상태에서 유통되고 익어보일 때 판매. 하지만 5일장은 최상의 상태에서 담아서 판매됨. 더 좋은 상품.

◆ 향후 농업발전을 위해 육성해야 될 것은?

- 중간 물류를 통해 중앙 가락동 시장으로 올릴 건 올리고 지역 내 유통할 것은 유통시켜야 함.
- 소비시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비농들도 많고 지인들을 통해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음.
- 그림 시장에서 사먹는 비율은 어느정도 되는가? (공무원들...)
- 공무원들이 보통 맛벌이 부부기 때문에 퇴근길에 마트(GS 마트 등)에서 구매하는 경우 많음.
- 시설채소의 노동력 부족의 문제 -> 인력수급

11. 응봉면 - (2012.1.10) / 응봉면장 정무현

◆ 응봉면의 농업여건 및 주요작물

- 응봉면은 구릉지가 많아서 과수농가가 많음. 과수가 쌀보다 소득도 높음. 과수가 약 300여 농가.
- 반면 과수 못하는 전업농들은 영세소농. 평균치 이하의 생활.
- 이밖에 화훼농가가 몇농가 있음. -> 하우스 10여 농가 정도로 특작(업침리)
→ 몇 농가 안되기 때문에 집중적 지원은 x

◆ 향후 사과의 경쟁력에 대해서는?

-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있겠지만, 현실적으로 소득을 올리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.
- 충남에서는 예산 사과가 많은 비중이지만 전국 단위에서는 경상도에 물량이 안됨.
- 웃골 사과 / 정심골 사과 등 정도는 제외
- 또한 이미지로 부각한 충주사과 등에 비해 브랜드 경쟁력이 떨어짐.

◆ 사과와 친환경 농업?

- 사과는 현재 농약을 안쓰고는 재배하기 힘든 상황.
- 국가정책적으로 맹독성 농약은 규제.
- 요즘은 햇빛을 일주일 정도 받으면 성분이 없어진다던지 오히려 요즘은 농약의 잔류성에 대해 걱정을 안해도 될 터. → 따라서 농약을 뿌리고 안뿌리고의 문제는 아님.
- 친환경 인증과 저농약 사과랑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 생각됨.

◆ 사과가공에 대해.

- 시설비 많이 듦. 또한 대기업과 중복되는 제품 많음.
- 만들어내도 농민들이 만들어서 경쟁력을 갖추기는 힘든 상황.

◆ 사과 관련 정책의 방향

-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으로 양으로 경쟁력을 갖추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방향 전환이 필요함.
- 또한 타지역 청양 구기자처럼 특정 품목을 연구하는 연구소 있어야 될 것이며, 이곳에 전문인력의 투입이 필요함. 예) 사과 연구소
- 농업기술원에서 제공해주는 것은 전반사항 다 다루고 공무원이라서 한계가 있음.

◆ 사과 특작물?

- 이곳만 유일하게 사과가 특작물이라고 응답. 이곳은 농가 4집 중 1집은 사과를 함.
- 전체 농가호수에서 과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.
- 권역 나눈다면 - “오가 + 삼교 + 응봉”으로 묶여야 됨.
- 응봉은 중소농이 많다. 대체로 구릉지 이용해서 재배하니 3000평 정도가 많음. / 대규모는 많지 않음.
- 출하는 어떻게? - ‘증심골 사과’ -> 직거래(온라인), 가판장, 농협. 등
- 가판의 문제점?
- 대부분 지역산 사과이긴 하지만, 그렇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는 없음.

◆ 예산의 사과발전을 위해 먼저 해결되어야 할 부분?

- 과수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품목. → 인력 수급의 문제
- 현재 인력 수급은? 대도시 용역사를 불러서 외지 사람을 수급받고 있음.
- 고령화 되면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.
- 따라서 대규모를 하고 싶어도 인력 때문에 확장을 못하고, 적당히 맞게 해나감.
- 귀농귀촌인? → 할 수도 있겠지만 귀농귀촌인이 과수를 하는 것은 힘들 것임.

◆ 신활력사업으로 와인 육성 평가

- 시설 등에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지, 아니었으며, 벌써 중단했을 듯.
- 개인에게 너무 과도하게 해준 것이 아닌가? 하는 이야기도 나옴.
- 과연 얼마나 예산의 사과를 소비해주었는가?의 문제.

◆ 예산사과농협 / 능금조합

- 사과 농가들의 능금조합에 대한 평가? 긍정적인 영향은 하고 있음.

◆ 예당 저수지 주변 응봉면 관내 국민관광단지가 형성

- (군에서 추진하여 지정) 되어 있음.
- 국민관광단지에 예산 5미인 붕어찜 등을 판매하는 식당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됨.
- 이곳은 예당 저수지에서 잡힌 고기를 씀.
- 예당호 관리는 농어촌공사 / 어업허가 등의 관리는 군에서 담당
- 주말에는 관광지에 (예당 저수지)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음.

- 응곡리 /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선정 (아직 미완공) -> 현재 40억 가량 투입

◆ 현재 상황 및 필요한 정책 부분

- 특정작물 외에 혼합농 또는 비전업농업에 대해서도 투자가 필요함.
- 10명 중 세 사람 정도는 농업 여건이 어느 정도 괜찮지만 다른 것은 빠듯함. (연령과도 관계 있음)

- 4000평 재배 -> 1184만원 / 인건비 제하고 나면 300만원 가량 남음
- 지급금 150만원 받음.

- 외지인들의 비중 -> 점차 늘어나고 있음.
- KT & G 또는 KT -> 이런 기관들이 있음.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-> 전체적인 비중은 크지 않을 것.
- 요즘 rpc가 있어 모두 수매함.

◆ 추천 농업인

- 능금조합 조합장, 권오영 () : 응봉면 출신 / 과수 10,000평 / 경험 많고, 소득도 높음.
- 중소농 사과 재배인 추천? → 임침리. 이장단 한요성 () : 딸도 어느 정도 짓고, 과수도 하고 있음.

12. 삼교읍 - (2012.1.10) / 이원용 읍장님, 부읍장, 산업계

◆ 삼교읍 주요 작물

- 삼교읍은 쌀 위주. 다른 지역에 비해 특작이 많지 않음. 주로 벼농사.
- 일부는 축산과 과수
- 예산 12개 면 중 답이 가장 많음. 벼농사가 주가 됨.
- 벼농사 중심 작목반 있음.

◆ 친환경

- 친환경: 벼 종자를 계약 재배(성리 / 화포리쪽). 비료를 덜 쓰는 정도.
- 평야가 넓기 때문에 오히려 친환경으로 재배하기가 힘들.
- 현재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음.

◆ 삼교읍 쌀의 경쟁력

- FTA와 삼교읍의 쌀 경쟁력 관계
 - 미질이 좋은 평야. 경작규모가 큰 편.
- 쌀농사 주로 대농일텐데 얼마 정도? -> 몇만평씩 짓는 사람들도 꽤 됨.
- 쌀 출하하는 방식은? 주로 RPC(농협)에 판매하고, 개인 판매는 별로 없음.
 - 생산자가 직거래 하는 경우는 일부 종자를 계약 재배 하는 경우를 빼고는 없음.

◆ 현재 쌀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?

- 수익이 적음.
- 농식품부에서는 쌀 소비량 증가를 위해 쌀 가공산업 육성을 장려.
 -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가공산업이 발달되어야 미질이 안좋은 쌀은 가공으로 빠지고 질이 높아지니까 쌀 가격이 높아질 듯.
- 농약값과 비료값이 상당히 오름. + 인건비가 오름 + 농기계값이 비쌌. 이 농기계도 잘 보관해서 써야 10년 정도.... 콤팩트, 트랙터 같은 것들이 1억 정도(?)
 - 쌀 가격은 (직불제 포함) 고정되어 있고, 투입 비용은 증가되고 있음.
 - 수익률을 따지면, 특작이나 축산보다는 소득이 적음.
 - 그렇지만 투입 노동량이 1년 내내 들지는 않음.
 - 항공방제 현재 하고 있음. (많은 면적을 현재 진행 중)

◆ 삼교읍 쌀산업의 방향

- 친환경농업하고는 거리를 두고, 쌀산업기지로 육성하는 것이 좋을 듯.
- 미질이 좋음. 미질이 좋은 것은 경기미로 둔갑을 하고 있는 실정.
 - 미질로 따지면 삼교천을 중심으로 성리, 화포리 등 미질이 좋음(갯벌쌀의 미질이 상당히 좋다고 함).
- 이런 쌀을 빨리 브랜드화 해서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.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예산의 쌀 브랜드가 난무.
 - 브랜드를 늘리는 것보다 지금 브랜드들을 통합해서 부각시키는 것이 좋을 것.
- 발작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향후 다른 지역에서 배워와야 할 것.

◆ 추천 농업인

- 김중래(삭교농협조합장). 협회이장도 했고,농사도 짓고 있음. :
- 김영우(토마토 재배), 딸도 150마지기 지음. 큰 하우스에 방울토마토(600평 두 개 정도?) 재배.
 - 토마토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이 → 5kg 한박스 작년보다 1만원 씩. 문제 직면
-
- 이길주씨(갤러리딸). 삭교읍 브랜드 : 041-338-3392
- 신운성 이장님(딸 + 과수) 상선1리 :
- 임칠수 이장님(사과 + 딸) 상선2리 :
- 딸가공 - 한과(삽다리 한과) - 딸소비하는 양과 앞으로의 전망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. / 아마 딸을 별도로 쓸 것.

<기타 연락처>

- 최성승. 수촌리 :
- 예산군농민회장 이대열
- 전국새농민 예산군회장, 딸기연구회장 장철세

◆ 예산군 상황

- 사과는 신암과 오가가 주. 삭교도 사과 좀 있음. / 신암 탄전리, 오가 신월리 등 사과 집중 재배지역. 농업기술원 쪽 사과 재배지.
- 고덕 과수 + 축산 + 딸.... 다 함.

◆ 필요한 정책 부분

- 삭교에 농업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음. 농로, 배수로, 경작로 포장 등. 이런 것들이 삭교가 제일 안되어 있음.
- 일반적으로 농촌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읍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음. 그런데가 경지면 적은 넓기 때문에 농업기반이 더 취약. 농촌지역이면서 읍지역은 배제되는 문제점

<부읍장님>

- 농촌에 지원되는 자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 한가지 예로 사과 과수원 지원 사업들을 보면, 기존에 사과원을 하던 사람이 전환을 하면 지원을 해준다 등 범위가 한정되어 있음.
- 수량이 많은 품목은 늘릴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, 기존에 다른 것들을 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주니까 늘지가 않음.
- apc가 물량 확보를 못해서 애를 먹고 있음.
- apc 출하 못하면 지원 안해준다는 협박식도 문제. 예산군은 apc에 지원하는 돈이 상당히 많은데 농가 입장에서 여기 출하하면 값을 더 적게 받는다는 것은 문제
- 소득이 높은 품목은 늘릴 필요가 있다.